

『東國正韻』과 『奎章全韻』의 참고문헌 유형 비교 고찰

林茶英*

I. 서론	III. 조선 전기와 후기의 문자음운학과 韻書 편찬
II. 『東國正韻』과 『奎章全韻』의 참고문헌 유형 분석	IV.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조선 전·후기 학자들의 문자언어학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韻書 편찬자들이 참고로 했던 문헌들의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東國正韻』과 『奎章全韻』의 체재 및 한자음의 차이를 비교 고찰하였다. 『東國正韻』의 참고문헌은 그 수가 적을뿐 아니라 유형도 正韻을 규정한 韻書와 중국 전통의 韻圖, 그리고 성리학적 언어관으로 語音を 분석한 이론서에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奎章全韻』의 참고문헌의 수는 전부 100종이 넘었으며, 그 유형을 살펴보면 韻書類와 字書類 등의 문자언어학 관련 서적뿐 아니라 외국어 학습서 및 백과사전과 같은 실용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참고문헌 유형의 차이는 正韻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東國正韻』과 詩作에 실제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奎章全韻』의 형식과 내용상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주제어 : 『東國正韻』, 『奎章全韻』, 참고문헌, 조선시대 문자언어학, 韻書

* 단국대 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

I. 서론

본 연구는 『東國正韻』(1448)과 『奎章全韻』(1796)에 관한 문헌 기록 분석을 통하여 韻書의 편찬자들이 참고로 했던 서적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두 韻書의 참고문헌의 특징을 상호 대비함으로써, 조선 전·후기 문자언어학¹⁾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시기별 학문적 경향성이 실제로 두 韻書의 내용과 형식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

『東國正韻』은 한자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최초의 韻書로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직후 간행되었으며, 『奎章全韻』은 청대 고증학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문자학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다. 두 韻書는 모두 왕명에 의해 편찬된 韻書이며, 조선 전기와 후기의 지식인층에 의해 주도된 문자언어학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과물이다. 편찬 시기가 약 350년가량 차이가 나는 만큼 두 韻書의 내용과 형식은 여러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줄곧 조선 시대의 문자언어학사 또는 韻書 편찬사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정경일(2001)은 조선 후기에 형성된 실학적 학문 경향이 국어 연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조선 초기에는 현실 조선 한자음을 알 수 있는 韻書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때 만들어진 『東國正韻』의 한자음은 실제로는 東音を 표기한 것이지만, 개념적으로는 華音과 동일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어서 조선 후기에 와서야 『奎章全韻』을 포함한 현실음에 기반한 韻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바탕에는 자주적인 학문 태도를 특징으로 하는 실학의 학문적 경향성이 깔려있다고 하였다.³⁾ 나아가 정경일(2002)은 조선 시대에 편찬된 韻書의 서문과 범례를 분석한 후, 『東國正韻』은 당시 한자음에 불만을 가졌던 세종이 올바른 한자음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奎章全韻』은 기존 韻書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정조가 보다 완전한 형식과 내용을 갖춘 韻書를 만들기 위해 편찬한 것이라고 하였다.⁴⁾

1) 본 연구에서의 '문자언어학'은 韻學과 字學을 아울러 이르는 용어이다.

2) 『奎章全韻』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편찬된 『華東正音通釋韻考』(1747)와 『三韻聲彙』(1751)도 조선 후기 韻書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3종의 후기 韻書 가운데 『奎章全韻』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책이 비교 대상인 『東國正韻』과 동일한 官撰 韻書이고, 또한 참고문헌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3) 정경일, 「조선후기 국어 연구의 실학적 경향」, 『한국어학』 14, 한국어학회, 2001, 268~272면 참조.

이준환(2014)는 韻書 편찬의 목적을 첫째, 한자음의 정리, 둘째, 科試의 押韻 기준 마련, 셋째, 수록자 증보, 넷째, 字義 해설 보완 등 총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東國正韻』은 한자음을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韻書인데 비하여, 『奎章全韻』은 한자음의 정리, 押韻 기준 마련, 訓註의 보완 등 다양한 편찬 목적을 가진 韻書라고 설명하였다.⁵⁾

상기 선행 연구를 통해 『東國正韻』과 『奎章全韻』의 편찬 배경과 동기, 韻書의 형식과 체재 및 수록 한자음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밝혀졌으며, 또한 성리학과 실학으로 대변되는 조선 전·후기의 학문적 배경과 철학적 바탕이 두 韻書의 편찬 과정에서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 규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韻書 편찬 당시의 문자언어학 연구의 경향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참고문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두 韻書를 비교 고찰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는데, 韻書의 내용과 형식이 편찬에 참여한 학자들의 언어 연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이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東國正韻』과 『洪武正韻譯訓』(1455)의 서문, 그리고 『五洲衍文長箋散稿』 등과 같은 문헌 자료에는 중국의 전통 韻學과 관련한 인물 및 서책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문헌 기록은 韻書 편찬에 관여한 인물들이 수행한 언어 연구의 구체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면, 그 당시 문자언어학의 양상과 특징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문자언어학이 조선에서 어떻게 변용되어 갔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 문자언어학의 성격상의 차이를 살피고, 특정한 학문적 경향성이 韻書의 내용과 형식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II. 『東國正韻』과 『奎章全韻』의 참고문헌 유형 분석

『奎章全韻』의 편찬자 이덕무의 손자인 이규경은 「韻學卽音學辨證說」이라는 문장

4) 정경일, 『한국 韻書의 이해』, 아카넷, 2002, 206~207면·284~291면 참조.

5) 이준환, 「中世·近代·開化期の 韻書 및 字書 편찬의 역사」, 『東洋學』 57,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4, 161~165면 참조.

에서 백여 권의 문헌명을 늘어놓고, 韻書 편찬 당시 이덕무가 해당 서책들을 인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書目은 조선 후기 학자들이 문자언어학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주로 어떤 유형의 책을 참고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반면 『東國正韻』의 서문에는 소수의 인명과 韻學 관련 용어밖에 등장하지 않아서, 그 당시 학자들이 韻學을 연구하는 데 어떤 서적을 이용했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다른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東國正韻』과 동시대에 만들어진 『洪武正韻譯訓』(이하 『譯訓』으로 줄임)의 서문에 몇 종의 문헌명이 기록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 Ⅱ장에서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東國正韻』과 『奎章全韻』의 참고문헌 목록을 정리하고, 각각의 문헌들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대표 문헌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東國正韻』의 참고문헌과 그 유형

『東國正韻』의 서문 첫머리에는 총 여섯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원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包犧가 卦를 그리고 蒼頡이 글자를 만든 것이 역시 다 그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만물의 실정을 통한 것이고, 沈約·陸法言 등 여러 선비에 이르러서 무리에 따라 나누고 종류에 따라 모아서 聲調를 고르고 운율을 맞추면서 聲韻의 학설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글 짓는 이가 서로 이어서 각각 기교를 내보이고, 이 론하는 이가 하도 많아서 역시 잘못됨이 많았는데, 이에 司馬溫公이 그림으로 나타내고 邵康節이 수학으로 밝히어서 숨은 것을 찾아내고 깊은 것을 긁어내어 여러 학설을 통일하였으나, 五方의 음이 각각 다르므로 그러니 옳으니 하는 분변이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다.⁶⁾

밀줄 친 인물 가운데 包犧(伏羲氏)와 蒼頡은 중국의 전설상의 인물로, 包犧는 八卦를, 蒼頡은 漢자를 만들었다고 전한다. 『說文解字』(이하 『說文』으로 줄임)의 서문에

6) 건국대학교 출판부, 『東國正韻』, 건국대학교 출판부 영인본, 1988, 9~10면 “是故庖犧畫卦, 蒼頡制字, 亦皆因其自然之理, 以通萬物之情, 及至沈, 陸, 諸子彙分類集, 諧聲協韻, 而聲韻之說始興. 作者相繼, 各出機杼; 論議既衆, 舛誤亦多. 於是, 溫公著之於圖, 康節明之於數, 探蹟鉤深, 以一諸說. 然其五方之音各異, 邪正之辨紛紜.”

서 “包犧氏가 주역 八卦를 짓기 시작하고, 神農의 시대에 이르러 노끈으로 매듭을 지어 다스리고, 황제의 사관 蒼頡이 새와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書契(문자)를 만들었다.”⁷⁾고 설명한 바 있으며, 이 밖에 『易經』 「繫辭」,⁸⁾ 『荀子』 「解蔽」,⁹⁾ 『韓非子』 「五蠹」¹⁰⁾ 등 다수의 문헌 자료에서 두 인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선 문헌들 가운데 『說文』은 後漢의 許慎(58~147 추정)이 저술한 자서 겸 한자 해설서로서 漢代 이후 중국 문자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헌이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시대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¹¹⁾ 연구서 및 관련 기록이 조선 후기에 집중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초의 지식인들은 이 책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듯하다. 『東國正韻』의 서문을 보더라도 포희와 창힐이 각각 팔괘와 한자를 만들었다고 언급하였을 뿐, 문자학이나 『說文』과 관련된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東國正韻』의 편찬에 참여한 인물들이 韻書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說文』을 중요한 참고서적으로 이용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서문 중의 ‘沈’과 ‘陸’은 沈約(441~513)과 陸法言(생몰년미상)을 가리킨다. 심약은 南朝의 문인으로 『四聲譜』를 짓고, 四聲八病說을 창시한 사람이며, 陸法言은 그때까지 나온 韻書를 집대성하여 『切韻』(601)을 펴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서문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이들이 지은 책을 참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韻書의 효시라는 점을 보이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²⁾ 실제로 『四聲譜』는 전하지

-
- 7) 許慎, 『說文解字』 「序」, “古者庖羲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視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於是始作《易》八卦, 以垂憲象. 及神農氏, 結繩為治, 而統其事. 庶業其繁, 飾偽萌生. 黃帝史官倉頡, 見鳥獸蹄迹之跡, 知分理之可相別異也, 初造書契.”
- 8) 王弼 注, 성백효 역, 『譯註周易正義4』, 傳統文化研究會, 2020, 172~173면, “옛날 包犧氏가 천하에 왕 노릇 할 적에 위로는 하늘에서 象을 살펴보고 아래로는 땅에서 法을 살펴보며 새와 짐승의 文과 땅의 마땅함을 살펴보며 가까이는 자신의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물건에게서 취하여 이에 비로소 八卦를 만들어서 …… (古者庖羲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
- 9) [清]王先謙 撰, 『新編諸子集成·荀子集解 上』, 中華書局, 1988, 401면, “好書者衆矣, 而蒼頡獨傳者一也.”
- 10) 韓非 撰, 林東錫 역주, 『林東錫中國思想100 한비자』, 東서문화사, 2021, 2424~2425면, “옛날 창힐이 글자를 만들 때에 …… (古者蒼頡之作書也 ……)”
- 11) 하영삼, 「韓國 歷代《說文解字》研究 綜述」, 『中國語文學』 53, 영남중국어문학회, 2010, 181~182면, “이를 통해 고려 때의 과거시험에서 『說文』이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說文』은 고려조에서 관리가 되기 위한 필독서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교재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않은 지 오래되었고, 『切韻』 역시 20세기 초부터 잔권이 발견되기 시작했으므로 『東國正韻』의 편찬자들이 두 책을 직접 보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譯訓』의 서문에서 “그런데 沈約이 譜를 저술함으로부터 남방의 음이 섞이게 되어 식자들이 병통으로 여겼으나 ……”¹³⁾ 라고 하여 『四聲譜』를 언급한 바 있으나, 이는 『洪武正韻』(1375) 서문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¹⁴⁾ 또한, 한국고전종합DB에서 검색한 결과, 書名으로서의 『四聲譜』의 인용 건수는 1회에 불과했다.¹⁵⁾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보아 『東國正韻』이 만들어진 시기에 『四聲譜』는 이미 실전되어, 조선에 전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陸法言이 지은 『切韻』도 마찬가지로 편찬자들이 원본을 확인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이 책의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은 『廣韻』(1008)이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조선 시대까지 널리 이용되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東國正韻』의 서문에는 四聲이나 反切(切字之法)과 같은 용어가 쓰이고 있으며, 東韻·冬韻·江韻·陽韻 등과 같은 韻目的 이름이 보이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切韻系 韻書를 집대성한 『廣韻』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비록 陸法言이 지은 『切韻』의 원본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東國正韻』의 편찬자들이 이 韻書를 참고로 했다고 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서문에서 司馬溫公(1019~1086)이 그림으로 나타냈다고(著之於圖) 한 구절에서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切韻指掌圖』라는 후기 韻圖이다. 실제로 이 책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적어도 司馬溫公이 지은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의 일이다.¹⁶⁾ 철저한 고증학적 태도를 견지했던 조선 후기의

12) 유창균, 『東國正韻研究』, 螢雪出版社, 1966, 118면.

13) 고려대학교 출판부, 『洪武正韻譯訓』, 고려대학교 출판부 영인본, 1973, 349면 “自沈約著譜. 雜以南音. 有識病之 ……”

14) 아세아문화사, 『洪武正韻』, 『洪武正韻序』,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3, 8면 “梁의 沈約이 四聲八病을 정하고, 平上去入으로 나누어, 韻譜라 하였는데, 남방음(吳音)이 많이 섞여 있었다(自梁之沈約拘以四聲八病 始分爲平上去入 號曰韻譜 大抵多吳音也).”

15) 한국고전종합DB에서 ‘四聲譜’를 입력하면, 『星湖僊說』·『五洲衍文長箋散稿』·『弘齋全書』·『性齋集』 등 네 개의 문헌이 검색된다. 그중 『五洲衍文長箋散稿』를 제외한 나머지 문헌에서는 書名이 아닌 韻學 용어로 쓰였다고 봐야 한다.

16) 유창균, 『東國正韻研究-其二, 九十一韻의 成立과 그 背景』, 『진단학보』 28, 진단학회, 1965, 110면 참조.

실학자 李圭景(1788~1856)이나¹⁷⁾ 중국 최대 類書인 『四庫全書』에서도 이 책의 저자를 司馬溫公이라고 잘못 적고 있는 것을 보면¹⁸⁾ 『切韻指掌圖』를 司馬溫公이 지었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는 오랜 기간에 걸쳐 별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듯하다. 저자를 잘못 적은 것과는 별개로 『東國正韻』의 편찬에 참여한 이들이 『切韻指掌圖』와 같은 韻圖를 꼼꼼히 살펴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字母를 七音과 淸濁으로 나누고 있는 점이나, 서문에서 36字母의 字母名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심지어 현실한자음의 잘못된 양상을 字母之變·七音之變·淸濁之變 등 韻圖에서 볼 수 있는 용어들을 이용해 분류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司馬溫公에 이어서 나오는 邵康節(1011~1077)은 『皇極經世書』에서 상수 이론으로 語音을 분석한 인물이다. 이 책에 담겨있는 언어에 관한 이론이 조선 초기 학자들의 언어학 연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한다.¹⁹⁾ 조선 초기의 학자들이 邵康節의 상수학을 얼마나 완벽히 이해하였는지, 나아가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우리말을 분석하고 한자음 사전을 편찬하였는지에 대해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皇極經世書』가 성리학 이론을 집대성한 『性理大全』 권 7~13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책을 아예 참고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邵康節이 제시한 正音에 대한 관념은 편찬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譯訓』의 서문에서는 『四聲譜』·『洪武正韻』·『四聲通攷』·『蒙古韻略』·『韻會』를 언급하고 있다.²⁰⁾ 『洪武正韻』(1375)은 明 太祖가 樂韶鳳과 宋濂 등에게

17) 李圭景 저, 성백효 외 역, 『分類 五洲衍文長箋散稿』 17집, 민족문화추진회, 1967, 225(八二)면, “그 단서를 연 것은 司馬溫公의 韻譜에 …… (開其端者 則溫公譜 ……)”

18) 楊家駱 主編, 『四庫全書簡明目錄』, 上卷, 世界書局, 1975, 169~170면, “절운지장도 2권. 산마광 지음. …… 지금 전하는 等韻(韻圖) 중에서 이 책이 가장 오래되었다(切韻指掌圖二卷: 宋司馬光撰. …… 等韻之傳於今者, 以此書爲最古).”

19) 홍기문, 『正音發達史』, 서울신문사 출판국, 1946과 유창균, 「황극경세서가 국어학에 끼친 영향」, 『석당논총』 15, 1989은 상수학 이론이 훈민정음의 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심소희, 『한자 정음관의 통시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260면은 “15세기는 집현전 학자들이 신유학을 막 수용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으므로 『황극경세서』 「성음창화도」에 구현되어 있는 상수 음운학 이론을 충분히 숙지하여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는 기본 철학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기상조였을 것이다.”라고 하여, 邵康節의 이론이 조선 초기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20) 고려대학교 출판부, 『洪武正韻譯訓』, 고려대학교 출판부 영인본, 1973, 349~350면 “自沈約著譜.

편찬케 한 韻書인데, 당시 중국어에서 이미 소실된 入聲韻을 따로 세우는 등, 韻書의 음계가 실제 말소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중국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학자들에게 황제의 명에 의해 만들어진 欽定 韻書는 가벼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世宗이 申叔舟 등에게 이 책을 번역하게 하여 『譯訓』이 간행된 사실이나, 이후 英祖 46년에 覆刻하여 간행된 사실 등은 조선에서 『洪武正韻』이 갖는 권위와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서문에서 언급한 “蒙古韻”은 『蒙古韻略』(혹은 『蒙古字韻』)을 말하며,²¹⁾ “黃公紹의 韻會”는 『古今韻會舉要』(1297, 아래에서는 舉要로 줄임)²²⁾를 가리킨다. 元代에 만들어진 이들 韻書는 편찬 당시 중국어의 실제 말소리의 특징을 반영하여 入聲(-p -t -k)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는데, 신숙주는 『譯訓』의 서문에서 이 점을 비판하고 있다. 즉, 韻學에 정통한 조선의 학자들은 『蒙古韻略』(『蒙古字韻』)과 『舉要』의 음운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譯訓』의 서문에서 공식적으로 비판을 가할 만큼의 결점이 있었음에도 두 韻書는 『東國正韻』의 편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蒙古韻略』(『蒙古字韻』)은 한자가 아닌 파스파 문자로 한자음을 표기한 韻書라는 점에서 『東國正韻』과 매우 비슷한 성격의 韻書라고 볼 수 있으며, 『舉要』는 내용 면에서 『東國正韻』과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다.²³⁾ 그중에서도 『舉要』는 字意에 관한 해석이 매우 상세하여, 조선에서 『廣韻』과 함께 字意 註釋용으로 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²⁴⁾ 또한 조선 중기의 학자인 최세진이 『舉要』에 수록된 한자를 검색하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韻會玉篇』(1536)을 만든 사실을 보면 이 책의 활용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世宗이 『舉要』를 번역하고자 시도했으며,²⁵⁾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東國正韻』의 편찬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雜以南音. 有識病之 …… 命儒臣一以中原雅音. 定爲洪武正韻 …… 且以世宗所定四聲通攷. 別附之頭面 …… 蒙古韻與黃公紹韻會. 入聲亦不用終聲. 何耶. 如是者不一. 此又可疑者也. ……”

- 21) 『蒙古字韻』(1308)을 『蒙古韻略』의 增修本으로 보거나(유창균, 앞의 책, 223면), 두 책을 아예 같은 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만큼(寧忌浮 著, 『古今韻會舉要及相關韻書』, 中華書局, 1997, 206-207면), 두 책의 관계는 밀접하다. 다만 『蒙古韻略』이 현재 전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없다.
- 22) 『譯訓』 서문에 등장하는 『韻會』는 黃公紹가 편찬한 『古今韻會』(未詳)가 아닌 그의 제자 熊忠이 『古今韻會』를 요약하여 만든 『古今韻會舉要』이다.
- 23) 조운성, 「『東國正韻』 한자음의 성모와 운모 체계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1, 2~3면 참조.
- 24) 정경일, 「조선시대의 운서 이용 양상」, 『한국어학』 7, 한국어학회, 1998, 274~276면 참조.

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蒙古韻略』(『蒙古字韻』)과 『舉要』를 『東國正韻』의 참고문헌으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로써, 『東國正韻』의 참고문헌은 『廣韻』·『切韻指掌圖』·『皇極經世書』·『洪武正韻』·『蒙古韻略』(『蒙古字韻』)·『古今韻會舉要』로 정리된다. 6종의 문헌을 유형별로 나누면, 『切韻指掌圖』는 韻圖類에 속하고, 『皇極經世書』는 韻學書類로 분류되며, 나머지 4종은 모두 韻書類에 해당한다.²⁶⁾ 각 유형에 속하는 문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韻書는 한자의 음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押韻 참고용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韻書에서는 통상 서로 押韻을 할 수 있는 韻들을 한데 모아서 四聲별로 분류하고, 그 음을 反切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초기 韻書의 경우 反切로 나타난 한자의 음이 실제 語音を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자음 사전으로도 쓰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韻書가 科試用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押韻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본래의 편찬 목적은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었지만, 韻書가 수록하고 있는 한자음은 실제 말소리와 점차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²⁷⁾ 601년에 편찬된 『切韻』의 음계를 1008년에 만들어진 『廣韻』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뀌어버린 韻書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洪武正韻』과 『蒙古韻略』(『蒙古字韻』)은 科試用으로 편찬된 것이 아니라, 正音(표준음 또는 규범음)을 확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科擧나 押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황제의 명에 의해 만들어진 勅撰韻書로서 正音を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廣韻』과 마찬가지로

25) 세종은 집현전 교리 최항, 부교리 박팽년 등에게 『韻會』를 번역하게 하였다.

26) 유창균, 『東國正韻研究』, 蝸雪出版社, 1966, 121면에서는 『東國正韻』의 참고문헌 목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東國正韻의 編纂을 中心으로 그에 따라 提起되는 韻書로써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 왔거나와 지금까지 論及한 書名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切韻』·『四聲韻譜』·『切韻指掌圖』·『經世聲音唱和圖』·『古今韻會舉要』·『洪武正韻』·『七音略』·『中原雅音』·『蒙古韻略』·『禮部韻略』” 이 목록은 본 연구에서 정리한 참고문헌 목록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七音略』은 韻圖에 해당하고, 『四聲韻譜』·『中原雅音』·『禮部韻略』은 韻書에 포함되므로, 문헌의 목록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문헌의 유형에는 차이가 없다.

27) 韻書의 성격이 바뀌게 된 바탕에는 隋에서 唐으로 이어지는 통일 제국의 출현과 더불어 儒學이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매김하고, 관리 선발 방식으로 科擧制가 채택되면서 詩賦의 작성이 단순한 문사들 간의 交遊의 수단에서 입신양명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지로 규범성을 띠다고 할 수 있다. 한편 『舉要』는 앞의 세 韻書와 다르게 표면적으로는 전통 韻書의 틀을 계승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편찬 당시의 語音を 반영하고 있는 독특한 韻書이다. 이 책은 실제 말소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明代에 유행한 時韻 韻書와 비슷한 면이 있다.

韻圖는 말소리를 분석하고, 정확한 한자음을 보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중국의 전통 음운학과 음성학 연구의 성과가 그대로 담겨있는 자료로서, 한자음의 聲母를 七音과 淸濁으로 나누고, 韻母를 等과 開合으로 분석하였으며, 도표 안 가로줄에 聲母를, 세로줄에 韻母를 늘어놓고,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 음으로 읽히는 글자를 적어 넣어 한자의 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현재 전하는 韻圖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韻鏡』과 『七音略』이고, 『切韻指掌圖』는 이보다 늦은 시기에 만들어진 韻圖로서, 『四聲等子』 및 『切韻指南』과 더불어 後期韻圖에 속한다.

『皇極經世書』는 韻學書에 속하는 邵康節의 저서이다. 韻書와 韻圖는 불교와 함께 들어온 산스크리트와 고대 인도 언어학 이론에 자극받은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 韻書와 韻圖는 외래문화에 기초해 이루어진 결실인 셈이다. 『皇極經世書』는 여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만들어진 책이다. 邵康節은 이 책에서 『周易』을 바탕으로 한 象數 이론으로써 말소리의 체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聲音唱和圖」로 도표화하였다. 韻書와 韻圖가 語音を 분석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개념을 제공하였다면, 韻學書는 말소리에 관한 생각, 즉 言語觀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邵康節의 이론은 곧 조선 초기 世宗이 펼친 언어 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6종의 문헌을 내용상의 특징에 따라 다시 나누면 『東國正韻』의 참고문헌은 正音을 제시한 사전, 正音과 현실음을 함께 보인 사전, 말소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표로 구현한 언어학 전문서, 성리학에 바탕을 둔 언어관으로 語音を 분석한 이론서로 분류할 수 있다.

2. 『奎章全韻』의 참고문헌 유형 분석

李圭景(1788~未詳)은 『五洲衍文長箋散稿』에 실려 있는 「韻學卽音學辨證說」에서 이덕무가 『奎章全韻』을 지을 때, 인용한 백여 권의 문헌의 목록을 나열해 놓았다.

문헌은 크게 조선에서 만들어진 것과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다시 韻書類 등 여러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조선에서 편찬된 도서들은 韻書類, 譯學書類, 初學書類, 字書類, 類書類, 그 외 등 7개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인 書名은 다음과 같다.

- ㉠ 韻書類: 『三韻通考』 『洪武正韻』 『四聲通解』 『正音通釋』(華東正音通釋韻考)
『三韻聲彙』 『奎章韻瑞』 『奎章全韻』
- ㉡ 譯學書類: 『蒙漢韻要』 『同文類解』
- ㉢ 初學書類: 『訓蒙字會』, 『類合』
- ㉣ 字書類: 『全韻玉篇』
- ㉤ 類書類: 『大東韻府群玉』
- ㉥ 그 외: 『語錄解』 『釋言類解』

다음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문헌은 총 9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각 유형에 속하는 書名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 韻書類: 『切韻』 『交泰韻』 『蒙古韻畧』 『聲譜』 『韻略』(杜臺卿) 『韻畧』(陽休之)
『古今韻略』 『韻集』 『音譜』 『音韻決疑』 『古今通韻』 『古今定韻』 『古今韻括』
『韻經』 『正韻淺』 『韻海鏡源』 『切韻聲原』 『五聲譜』 『群經音辨』 『國語補音』
『五音韻譜』 『韻詮』 『韻集』(段弘) 『四聲韻林』 『景祐集韻』 『古韻通式』 『古韻通』
『群玉典韻』 『補修加字切韻』 『音韻日月燈』 『西儒耳目資』
- ㉡ 韻圖類: 『切韻射標』 『字學元元』 『切韻指掌』 『韻通』 『元和韻譜』
- ㉢ 韻學書類: 『音學五書』 『音論』 『韻學要旨』 『聲律發蒙』 『毛詩古音考』 『四聲指歸』
『屈宋古音考』 『杜律細』 『直指玉鑰匙』
- ㉣ 字書類: 『說文』 『字林』 『字彙』 『正字通』 『康熙字典』 『篇海五音』 『龍龕手鏡』
『篆韻』 『鐘鼎古今韻』 『鐘鼎篆韻』 『書學正韻』
- ㉤ 文字解說書類: 『聲音文字通』(趙搗謙) 『訓纂』 『聲音文字通』(柴廣進) 『字貫』 『金壺字考』
- ㉥ 語彙集: 『釋常談』 『字考』 『鷄林遺事』
- ㉦ 音義書類: 『漢書音義』 『漢書音注』 『經史動靜字音』 『五經音義』
- ㉧ 詩譜: 『三百篇聲譜』
- ㉨ 미확인: 『中原七音』 『切韻正義』 『諧聲樞劍』 『字韻全書』 『悉曇總持』 『文殊問

字經』 『翻切書』 『音義雜說』 『四聲糾謬』 『字音』 『正始音』 『大宋五音正韻』 『禮部韻拾遺』 『切圖四法』 『免疑字誤』 『韻要』 『聲韻譜』 『四聲韻類』 『四聲等第圖』 『韻英』 『華東正音』

上記 자료의 목록을 살펴보면 『奎章全韻』의 참고문헌은 그 수도 많지만,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東國正韻』의 편찬자들이 주로 韻學과 관련한 문헌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이덕무는 여러 유형의 도서를 두루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은 譯學書類·初學書類·類書類·字書類·文字解說書類·語彙集·音義書類·詩譜 등 8개 유형이 늘어난 11개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 속하는 문헌의 수도 대폭 늘었다. 두 운서의 참고문헌 유형의 차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과 같아진다.

<표 1> 『東國正韻』과 『奎章全韻』의 참고문헌 유형과 가짓수 비교

유형	『東國正韻』	『奎章全韻』
韻書類	4종	37종(『奎章全韻』 제외)
韻圖類	1종	5종
韻學書類	1종	8종
初學書類	없음	2종
譯學書類	없음	2종
字書類	없음	11종(『全韻玉篇』 제외)
類書類	없음	1종
文字解說書類	없음	5종
語彙集	없음	3종
音義書類	없음	4종
詩譜	없음	1종

이제 『奎章全韻』의 참고문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자언어학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문헌들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奎章全韻』의 참고문헌을 『東國正韻』의 것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조선에서 만들어진 문헌이 들어가 있다는 점일 것이다. 두 韻書는 약 350여 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편찬되었다.上記

목록에서 『奎章全韻』의 편찬자 이덕무는 그 기간 동안 조선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문헌을 섭렵했음을 알 수 있는데, 書目에 『東國正韻』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의 書目 가운데 『華東正音通釋韻考』(1747)와 『三韻聲彙』(1751)는 『奎章全韻』과 더불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韻書이며, 가장 늦은 시기에 편찬된 『奎章全韻』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세 韻書는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韻圖의 형식을 빌렸고, 둘째, 한국한자음과 중국한자음을 併記하였으며, 셋째, 실제 통용되었던 현실한자음을 반영하였다.²⁸⁾ 앞서 만들어진 두 韻書와 『奎章全韻』의 구체적인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東國正韻』의 참고문헌 중 韻書類에는 正音(표준한자음)을 보이기 위한 韻書와 실제 말소리를 반영한 韻書가 있음을 확인했다. 『奎章全韻』의 참고문헌 書目에는 여기에 더하여 본격적인 時韻 韻書, 古今韻 韻書, 로마자 표기 韻書까지 들어가 있어서 눈길을 끈다. 明代는 전통의 틀을 계승한 韻書와 韻圖뿐 아니라, 당시의 실제음을 반영한 새로운 형식의 韻書와 韻圖가 만들어진 시기이다. 『奎章全韻』은 획기적으로 발전한 중국의 문자언어학 연구 결과물을 대폭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먼저 呂坤(1536~1618)이 지은 『交泰韻』(1603)을 들 수 있다. 『交泰韻』은 중국어 근대음의 특징을 반영한 時韻 韻書이다²⁹⁾. 이 韻書의 聲母 체계는 19聲母 체계로 대표적인 時韻 韻書로 꼽히는 蘭茂(1397~1474)의 『韻略易通』(1442)의 20聲母 체계와 거의 일치하며, 韻母는 37개로 역시 지금의 중국어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뿐 아니라 聲調 체계는 陰平·陽平·上聲·去聲의 四聲 체계로 현대 중국어의 聲調 체계와 완전히 일치한다.

『五聲譜』는 明代의 經學家 郝敬(1557~1639)이 편찬한 책으로 17세기 초의 湖北 京山 방언을 반영하고 있다. 저자 郝敬은 “말소리는 方俗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時音を 반영한 韻書を 지었다.³⁰⁾ 『舉要』가 표준음과 실제 말소리를 각각 겹 체계와 속 체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면, 『五聲譜』는 일부 지역의 실제 말소리를 특정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明의 張之象(1496~1577)이 엮은 『韻經』(1538)은 經傳의 音韻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된 소위 古今韻 체계의

28) 반영 정도는 차이가 나지만, 세 韻書가 현실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29) 全濁 聲母의 소실, -n韻尾가 -n韻尾와 합류, 平聲의 분화 등이 있다.

30) 甯忌浮, 『漢語韻書史 明代卷』, 上海人民出版社, 2009, 300면 참조.

韻書로서³¹⁾, 현재 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古今韻韻書이다.³²⁾ 마지막으로 『西儒耳目資』(1626)는 예수회 프랑수아인 선교사 金尼閣(Nicolas Trigault, 1577~1628)이 지은 책으로, 한자음을 로마자로 표기한 최초의 韻書이다. 앞의 두 부류는 학문 참고용으로, 마지막 것은 중국어 학습용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세부 용도는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국가가 시행하는 언어 정책의 일환으로 편찬된 詩韻 제시용 韻書와는 성격이 다른 실용성이 큰 서적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韻圖類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明末에 李世澤이 지은 『切韻射標』이다. 이 책의 다른 이름은 『韻法橫圖』이며, 『韻法直圖』라는 韻圖와 함께 『字彙』의 말미에 실려 있다. 明代 이후가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실제 말소리와 宋代에 만들어진 韻圖 속의 語音이 서로 맞지 않아 기존 韻圖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때 나타난 것이 『切韻射標』와 『韻法直圖』라는 새로운 형식의 韻圖이다. 宋代 韻圖가 韻을 분류할 때 等과 開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들은 呼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여 語音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달라진 중국어의 특징을 고려한 결과이다. 또한 『切韻射標』와 『韻法直圖』는 明代 官話음을 반영하고 있어 실제 한자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로 이용되었다.

韻學書類에 포함된 서적 대부분은 清代 古音學과 관련되어 있다. 邵長蘅(1637~1704)의 『古今韻略』,³³⁾ 毛奇齡(1623~1713)의 『韻學要旨』(1691), 顧炎武(1613~1682)의 『音學五書』(1667), 陳第(1541~1617)의 『毛詩古音考』와 『屈宋古音考』는 대표적인 古音學 연구 성과이다. 邵長蘅과 毛奇齡, 그리고 顧炎武는 清代의 古音學 연구를 이끌었던 학자들이고, 陳第는 明代의 音韻學者이자, 古音學 연구의 발판을 마련한 인물이다. 참고문헌에 이들의 저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곧 이덕무의 문자언어학 연구가 古音學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려 준다. 실제로 이덕무는 韻書를 편찬하는 데 있어 邵長蘅과 顧炎武의 견해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正祖의 「文字策問」에 대해 답한 ‘六書策’의 기록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1) 古今韻에서 古韻은 중국 先秦 시기의 古音を 가리키고, 今韻은 詩韻 즉, 韻書의 音을 이른다.

32) 甯忌浮, 앞의 책, 121면 참조.

33) 『古今韻略』은 韻書이지만, 저자 邵長蘅이 清代를 대표하는 고음학자 중 하나이므로, 편의상 韻學 書類에 속하는 문헌들과 함께 설명한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字와 韻은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하나도 폐할 수 없으니, 說文과 廣韻의 學官을 세워 郭忠恕의 汗簡과 周伯琦의 正譌로 字書의 羽翼을 삼고, 顧炎武의 音學과 邵長蘅의 韻略으로 韻書의 우익을 삼고
.....³⁴⁾

밑줄 친 문장의 音學과 韻略이 곧 『音學五書』와 『古今韻略』인데, 이덕무는 그중에서도 특히 邵長蘅의 연구 성과를 『奎章全韻』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그 이유는 顧炎武와 邵長蘅의 연구 성향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顧炎武는 古音學 연구를 통해 經書를 바로 읽고 성현의 올바른 뜻을 구하려 하였으며, 語音의 復古를 통해 풍속의 순화를 이루려고 하였다.³⁵⁾ 이와는 달리 邵長蘅은 古音を 현실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古今の 韻을 하나로 묶음으로서 당시 사람들이 이를 실제 詩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⁶⁾ 즉, 顧炎武는 문자언어학 연구를 經學의 일부분으로 인식했던 반면, 邵長蘅은 실용의 목적으로 古音學을 연구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韻書를 만들고자 했던 이덕무가 邵長蘅의 견해를 중시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韻書를 편찬하는 데 있어 古音學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점이야말로 『東國正韻』을 편찬할 때의 사정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古音學은 고증학적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한 매우 실증적인 학문이다. 앞서 『東國正韻』의 참고문헌 가운데 『皇極經世書』라는 韻學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책에서는 성리학이라는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語音 체계를 설명했다고 한 바 있다. 즉, 韻學書類의 특징만을 놓고 비교한다면, 『東國正韻』의 편찬자들은 언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형이상학적인 방법을 지향했던 반면 이덕무는 實事에 기초한 고증적 고찰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은 조선 전·후기의 학문적 경향성과 일치한다.

34) 이덕무, 『靑莊館全書』 권20, 「雅亭遺稿十二」 “臣愚以爲字韻二書. 如鳥兩翼. 不可偏廢. 說文廣韻. 立之學官. 以郭忠恕汗簡. 周伯琦正譌. 爲字書之羽翼. 以顧炎武音學. 邵長蘅韻略. 爲韻書之羽翼
.....”

35) 김경천, 「顧炎武 古音學의 動機와 方法」, 『중국어문논총』 21, 중국어문연구회, 2001, 271면.

36) 신상현, 「18세기 韻書 編纂과 清代 古音學 受容 研究-특히 『奎章全韻』 편찬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8,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312면 참조.

韻學 관련 문헌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적은 字書類와 文字解説書類이다. 許慎의 『說文』, 呂忱의 『字林』, 行均의 『龍龕手鏡』(997), 韓孝彦(金)의 『篇海五音(四聲篇海)』, 梅膺祚의 『字彙』(1615), 張自烈(1564~1650)의 『正字通』(1670) 등은 字書 편찬의 중요 요소인 수록자 배열법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을 편찬 시기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許慎은 『說文』에서 수록자를 질서 있게 배열하기 위해 부수를 창안하고, 9353자에 달하는 한자를 540部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다만 許慎이 부수를 고안한 목적은 사전 검색의 편의를 더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한자를 ‘經藝의 근본이자 왕정의 시작’으로 보았던 許慎은 한자의 本義를 밝히기 위해 부수를 생각해냈으며, ‘一’에서 시작해서 ‘亥’로 끝나는 部首의 배열 순서도 劃數가 아닌 部首字의 유교 철학적 의미에 따라 정해진 것이었다.³⁷⁾ 즉, 『說文』은 단순한 한자 사전이 아니라 經傳 속의 한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문자의 성립 과정과 그 의미를 철저히 분석해놓은 字書 겸 문자해설서였다. 이후 편찬된 字書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띠며, 西晉 시기에 편찬된 『字林』(280?)도 『說文』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은 字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유교적 철학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부수를 세우고 이용하던 방식은 『龍龕手鏡』(997)에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 책은 遼의 승려 行均이 편찬한 字書로서, 大藏經에 쓰인 한자를 注解한 것이다. 行均은 26,000여 자를 총 242部로 나누었는데, 그중에는 ‘ㄱ(돼지해머리)’처럼 새로 만들어진 部도 있다. 『說文』에서는 ‘ㄱ’와 같이 하나의 독립된 문자가 아닌 경우 부수로 세우지 않았으나, 『龍龕手鏡』에서는 한자를 구성하는 일부분까지도 부수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곧 부수가 부호화하기 시작했음을 뜻하며,³⁸⁾ 동시에 문자학을 經學의 일부라고 보았던 지식인들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나아가 行均은 242개의 部首를 平·上·去·入의 四聲 순으로 분류하고, 수록자를 배열하였는데, 이 역시 전통적인 字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이다. 金代에 나온 『篇海五音』도 韻圖에서 한자의 聲母를 나누는 기준인 五音 및 36字母에 따라 444개의 部를 배열하여 전통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독특한 형식의 字書로 평가된다.

37) 大島正二, 『<辭書>の發明』, 三省堂, 1997, 82~84면.

38) 大島正二, 앞의 책, 85~86면.

上記 2종의 字書에서는 부수의 변용을 통해 한자 검색의 편의성을 더하고자 하였으나, 두 字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四聲이나 五音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제자 배열 방법에 劃數라는 개념을 도입한 책이 바로 『字彙』이다. 梅膺祚는 劃數의 많고 적음에 따라 240部를 나열하고, 하나의 部 안에서도 劃數에 따라 한자를 배열함으로써 검색의 편의성을 높였다. 즉 『龍龕手鏡』에서 시작된 부수의 부호화가 『字彙』의 수록자 검색법에서 완성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說文』 이후 줄곧 經學의 일부로서 인식되었던 字書가 한자 정보 검색을 위한 도구로 탈바꿈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책은 그 실용성을 인정받아 문자 교육의 도구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문자학과 『說文』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清代 고증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字彙』의 검색법은 기존의 字書와 韻書를 집대성한 『康熙字典』(1716)에서 채택되고, 19세기 이후 조선에서 편찬된 字書들도 모두 이 방식으로 표제자를 배열하는 등 후대 字書에 큰 영향을 미쳤다. 『正字通』은 『字彙』의 개정 증보판으로 형식과 내용면에서 『字彙』의 특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문자언어학 관련 서적을 뺀 나머지 유형은 크게 經學을 위한 문헌과, 經學과 무관한 실용서로 구별할 수 있다. 初學書類와 音義書類는 전자에 속하고, 외국어 학습서인 譯學書, 지금의 백과사전과 유사한 類書, 그리고 語彙集과 詩譜 등은 모두 실용서에 포함된다. 즉 『奎章全韻』의 참고문헌에는 전통을 따른 韻書와 字書뿐 아니라 전통에서 탈피하여 실용성을 앞세운 문자언어학 서적 및 經學과 관계없는 책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점이 『東國正韻』의 참고문헌과 구별된다고 하겠다.

Ⅲ. 조선 전기와 후기의 문자음운학과 韻書 편찬

참고문헌의 유형은 韻書 편찬 당시 학자들의 문자언어학 연구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유형의 변화는 바뀌어 가는 문자언어학 연구의 흐름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東國正韻』의 참고문헌은 규범성과 보수성이 강하고,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나타냈고, 『奎章全韻』의 참고문헌은 거기에 더하여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古音學 연구 성과물이나 실용성을 내세운 문헌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두 韻書의 형식과 내용상의 차이점을 참고문헌의 특징과 연결지어 살펴본다.

1. 형식상의 차이

『東國正韻』과 『奎章全韻』의 형식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두 韻書의 차이점을 모아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東國正韻』과 『奎章全韻』의 형식상의 차이 비교

	『東國正韻』	『奎章全韻』
체재	통단	4단
수록자 분류 기준	91韻目 > 23字母 > 四聲	四聲 > 106韻 > 한글자모
字釋	X	O
수록 한자음 종류	東音	東音 · 華音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東國正韻』은 통단 체재로 되어 있다. 이 체재는 한 면의 구획을 나누지 않고 수록자를 늘어놓은 방식으로, 한자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廣韻』·『洪武正韻』·『舉要』를 포함한 중국 韻書는 거의 대부분이 통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초기에 이미 韻圖의 형식을 빌려 가독성을 높인 『三韻通考』라는 韻書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³⁹⁾ 『東國正韻』의 편찬자들은 중국 韻書의 형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즉, 편찬자들에게 있어 검색의 편의성은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東國正韻』에서 수록자 분류 기준을 적용한 순서는 중국의 韻書와 완전히 다르다. 주지하듯 『廣韻』 등과 같은 기존의 韻書는 ‘四聲 > 韻母 > 聲母’의 순으로 수록자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東國正韻』에서는 먼저 91韻目を 기준으로 해서 글자를 나누고, 다음으로 字母가 같은 글자들끼리 분류한 뒤, 마지막으로 卍 · 上 ·

39) 『三韻通考』의 저자와 제작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한자음을 표기하지 않은 점이나, 편찬과 관련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 등으로부터 고려 말에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정경일, 『한국 韻書의 이해』, 아카넷, 2002, 41면 참조.

去·入의 순으로 글자를 배열해 놓았다. 나아가 韻目的 배열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入聲(陽聲)韻尾를 가진 韻을 먼저 배치하고 陰聲韻尾를 가진 韻을 뒤에 넣어 결과적으로 ‘ㅇ(ㄱ) > ㄴ(ㄷ) > ㄹ(ㅂ) > ㅁ > ㅇ’ 종성 순으로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韻尾를 기준으로 하여 韻目的 배열 순서를 정하는 방식은 중국의 韻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점으로, 음절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⁴⁰⁾

『東國正韻』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한자의 뜻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세한 정도는 다르지만 거의 모든 韻書에는 수록자 아래에 字釋이 달려 있다. 『廣韻』의 경우 주석이 지나치게 상세하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한자의 뜻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⁴¹⁾, 『舉要』는 『廣韻』보다 더 자세한 주석을 달고 있다. 그러나 『東國正韻』에서는 한글로 한자음을 제시한 뒤, 그 아래에 음이 같은 한자를 나열해놓았을 뿐, 글자의 뜻풀이를 하지 않았다. 이는 『東國正韻』의 편찬 목적이 ‘正音의 확정’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世宗은 『東國正韻』을 만든 후, 자신이 만든 韻書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⁴²⁾ 이 역시 『東國正韻』의 편찬이 실용에 있지 않았음을 뒷받침해 주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韻書 3종이 모두 東音(한국한자음)과 華音(중국한자음)을 함께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東國正韻』은 오직 東音만을 싣고 있다. 후기 韻書들이 두 종류의 한자음을 併記한 목적은 한국한자음 검색과 중국어 학습에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世宗은 正音(표준한자음)을 정하고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東國正韻』을 편찬하고, 중국어 학습에 참고하기 위한 韻書로 『洪武正韻譯訓』을 만들게 하였다. 수록자의 字釋을 달지 않았다는 점이나, 華音을 달지

40) 정경일, 『한국 韻書의 이해』, 아카넷, 2002, 89면, “이와 같은 배열 순서의 특징은 무엇보다 한자음의 분석이 종래의 2분법에서 3분법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종성이 자음 분류의 제일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은 종래 중국식의 2분법에서는 단순히 운모의 일부분인 운미의 변별성을 크게 인식한 결과이다.”

41) 紀昀, 『四庫全書總目提要』, “주가 너무 상세하고 장황하다. …… 이는 韻書를 類書로 만든 것이다. (較奮本爲詳, 而冗漫頗甚 …… 是將以韻書爲類書也.)”

42) 『世宗實錄』, 권122, 世宗三十年十月十七日庚午, “『東國正韻』을 여러 道와 성균관·사부 학당에 반사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본국의 인민들이 俗韻을 익혀서 익숙하게 된 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갑자기 고칠 수 없으니, 억지로 가르치지 말고 배우는 자로 하여금 의사에 따라 하게 하라.” 하였다. (頒『東國正韻』于諸道及成均館·四部學堂, 仍教曰: “本國人民, 習熟俗韻已久, 不可猝變, 勿強教, 使學者隨意爲之.”)

않고 東音만을 수록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 조선 초기의 韻書 편찬은 이용자들에게 실용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닌 국가 언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正音 제시라는 『東國正韻』의 편찬 목적으로부터 이 韻書와 『廣韻』·『洪武正韻』·『蒙古韻略』(『蒙古字韻』) 등의 규범음 韻書와의 상관 관계를 엿볼 수 있다.

한편 『奎章全韻』의 체재를 살펴보면, 한 면을 4단으로 나누어 卞·上·去·入의 四聲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수록해 놓았다. 이 방식은 韻圖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많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韻圖의 형식을 도입한 최초의 韻書는 『三韻通考』(未詳)이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華東正音通釋韻考』와 『三韻聲彙』는 모두 이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奎章全韻』의 경우 3단 형식을 받아들여 4단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⁴³⁾ 다음은 이덕무가 『三韻通考』에 관해 언급한 글이다.

지금 세상에 유행하는 『三韻通考』는 平聲·上聲·去聲을 3層으로 분류, 가로 보게 되어 있어 마치 年表나 世譜와 같고 入聲은 맨 뒤에 부기했으며, 字義는 두 줄로 갈라 注했으나 세 글자 이상이 넘지 않았고, 總數 9천 7백 32자였던 것을 承旨 金濟謙이 1천 7백 98자를 늘렸다. 科場에서도 통용할 수가 있어 편리하고 긴요한 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누구의 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芝峯類說』(李晔光이 지었다.)에, “『三韻通考』는 倭國에서 나온 것이지만 열람하기에 편리한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⁴⁴⁾ 하였고 …….

위의 글에서 이덕무는 『三韻通考』의 형식적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 韻書가 편리하고 긴요한 책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어서 『三韻通考』이 편리하다고 밝힌 『芝峯類說』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 내용으로부터 이덕무가 이 책의 체재를 수용한 것은 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만 『奎章全韻』이 3단이

43) 정경일, 앞의 책, 43면 참조.

44) 이덕무, 『靑莊館全書』 권60, 「蝨葉記七」 “今世所行三韻通放. 以平上去分三格. 作橫看. 若年表世譜. 附入聲于後. 分註二字. 無過三字. 總九千七百三十二字. 金承旨濟謙. 增千七百九十八字. 通用科場. 爲便要切近之書. 但不能的知爲何人所撰. 芝峯類說. 李晔光撰. 三韻通放. 出於倭國. 而便於攷閱. 故今用之 ……”

아닌 4단으로 만들어진 것은 韻書의 편찬을 명한 正祖가 入聲을 나머지 聲調와 押韻하지 않는 세태에 큰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 나아가 科擧 시험에서 詩賦를 지을 때 入聲도 함께 押韻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⁴⁵⁾ 이덕무는 正祖의 이러한 생각을 고려하여 실제로 科場에서 韻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층 더 편하게 한자음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면을 네 칸으로 나누고, 四聲을 차례로 집어넣은 韻書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검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힘쓴 흔적은 수록자 분류 기준의 적용 순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奎章全韻』에서는 수록자를 四聲과 106韻으로 분류한 뒤, 그 안에서 다시 한글의 모음과 자음을 기준으로 한자를 나누었다. 한글 자모를 이용하여 한자를 분류한 방식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三韻聲彙』를 따른 것이다.⁴⁶⁾ 韻書에서 한글의 모음과 자음 순으로 한자를 수록한 것은 한글 자모를 부호로 인식하고 활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龍龕手鏡』이나 『字彙』에서 한자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자와 그 일부를 부호처럼 사용한 것과 맥락이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수록자를 배열할 때 한글 자모를 기준으로 한 것은 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특징은 『東國正韻』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이다.

『奎章全韻』은 여타 조선 후기 韻書들과 마찬가지로 字釋이 자세하지 않다. 正祖가 새로운 韻書를 편찬하고자 했던 이유는 글자의 뜻풀이가 자세한 사전을 만들고자 했던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入聲을 따로 분리하여 수록한 이전 韻書의 체재를

45) 正祖, 『弘齋全書』 권165, “지금의 과시는 배율도 아니고 고시도 아니어서 별도로 하나의 시체인데, 평성·상성·거성의 세 성을 통합하거나 동용하거나 하여 두루 사용하면서도 유독 입성만을 압운하지 않으니, 이것이 과연 무엇에 근거한단 말인가? 단연코 규장전운을 새로 반포하는 날부터, 대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모두 입성의 압운을 허용하고자 한다.(我國科詩之不押入聲, 可謂無謂之甚. 唐制以詩取士, 以其八股排律, 故專押平聲, 而今之科詩, 非排非古, 自是一體, 平上去三聲, 通同通用, 而獨不押入聲, 是果何所據也? 斷自奎章全韻新頒之日, 無論大小科試, 許押入聲.)”

46) 다만 두 韻書의 자모 순서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곧 洪啟禧와 李德懋의 한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奎章全韻』과 『三韻聲彙』에서 제시한 자모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표 3〉 『奎章全韻』과 『三韻聲彙』의 자모 순서 대비

	中聲	初聲
『奎章全韻』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三韻聲彙』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보완하여, 四聲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전을 만들려는 데에 있었다.⁴⁷⁾ 『奎章全韻』이 만들어진 시기에 즈음하여 字釋이 매우 자세하고, 한자 검색도 수월한 『全韻玉篇』(未詳)이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奎章全韻』을 字義 검색용으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正祖는 1792년(正祖 16), 이덕무가 새로운 韻書를 완성하자 尹行恁 등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검토하게 한 뒤, 1796년(正祖 20)에 간행하여 전국에 반포하고, 이후 押韻의 기준을 『奎章全韻』에서 찾을 것을 명하였다.⁴⁸⁾ 이 사실로부터 正祖가 詩賦를 지을 때 실제로 이용하기 위한 韻書를 만들고자 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이 東音만을 수록하고 있는 것과 달리 『奎章全韻』은 東音과 함께 華音도 싣고 있다. 이 방식을 처음 채택한 韻書는 朴性源(1697~1767)이 지은 『華東正音通釋韻考』이다. 박성원이 華東 兩音을 병기한 韻書를 편찬하게 된 것은, 편찬 과정에서 역관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되는데, 東音은 詩賦의 창작에, 華音은 중국어 학습에 참고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韻書를 만든 것이다.⁴⁹⁾ 이덕무 역시 실용성이 높은 韻書를 만들기 위해 이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東國正韻』과 『奎章全韻』의 형식상 특징을 대비해 보았다. 그 결과 『東國正韻』은 『廣韻』이나 『洪武正韻』과 같은 중국의 규범음 韻書와 마찬가지로 ‘正音(표준한자음)의 확정’이라는 언어 정책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실용성이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반면, 『奎章全韻』은 실제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韻書를 만들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고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7) 앞선 연구에서는 『奎章全韻』의 편찬 동기에 대하여, 기존 韻書에 수록된 字數가 적고, 訓註가 疏略하며, 四聲을 三段으로 배치한 것에 불만을 가진 正祖가 새로이 韻書를 편찬할 것을 명했다고 하였다. 정경일, 앞의 책, 290면 참조. 그러나 『奎章全韻』의 字數와 訓註를 앞서 만들어진 韻書들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正祖는 入聲을 平·上·去聲과 분리하여 배치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奎章全韻』을 만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48) 『正祖實錄』, 권45, 正祖二十年八月十一日癸未, “『御定奎章全韻』을 서울과 지방에 반포해 내렸다. 전교하기를 …… 이후로 공적인 것이나 사적인 것에서 押韻字 및 入聲은 이 운서의 義例와 式令에 준하도록 하라. 이 일을 서울과 지방의 시험을 관장하는 관사에 분부하도록 하라. (頒賜『御定奎章全韻』于中外. 敎曰: …… 此後公私押韻字及入聲, 準此韻書義例, 式令事, 分付京外掌試之司 ……)”

49) 정경일, 앞의 책, 204면.

2. 한자음의 차이

『東國正韻』은 『廣韻』이나 『洪武正韻』처럼 규범성이 강한 韻書이다. 『廣韻』(1008)은 5~6세기 경의 중국어 讀書音 체계를 반영하고 있고,⁵⁰⁾ 『洪武正韻』은 북방음에서는 이미 元代에 없어진 入聲을 보존하고 있는 등, 두 韻書의 한자음 체계는 실제 語音과 거리가 멀다. 『東國正韻』의 수록음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교정을 가한 한자음으로, 그 당시 통용되었던 한자음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띤다. 반면 『奎章全韻』의 한자음은 현실한자음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매우 대조적이다. 두 韻書의 한자음을 초·중·종성의 순으로 대비해 살펴보자.

먼저 『東國正韻』과 『奎章全韻』의 초성 체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東國正韻』과 『奎章全韻』의 초성 비교⁵¹⁾

清濁 五音	全清		次清		全濁		不清不濁		全清		全濁	
	東	奎	東	奎	東	奎	東	奎	東	奎	東	奎
牙	ㄱ	ㄱ(ㄱ快)	ㅋ	ㄱ(ㄱ快)	ㄱ	ㄱ	ㅇ	ㅇ				
舌	ㄷ	ㄷㅌ/스ㅌ	ㅌ	ㅌㅌ/스ㅌ	ㄷ	ㄷㅌ/스ㅌ	ㄴ	ㄴ				
脣	ㅍ	ㅍㅍ	ㅍ	ㅍㅍ	ㅍ	ㅍㅍ	ㅍ	ㅍ				
齒	ㅅ	ㅅㅅ	ㅅ	ㅅㅅ	ㅅ	ㅅㅅㅅ			ㅅ	ㅅ	ㅅ	ㅅ
喉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半舌							ㄹ	ㄹ				
半齒							ㄷ	ㅇ				

<표 4>를 통해 『東國正韻』은 23字母 체계를, 『奎章全韻』은 14字母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이 全清과 次清의 구별, 清濁의 구별, 七音의 구별을 명확히 한 것과 달리, 『奎章全韻』은 全濁 聲母를 각자병서로 표기하지도 않았을뿐더러, 知系와 照二系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ㅇ’·‘ㄷ’·‘ㅇ’ 등의 초성자도 표기에

50) 최영애, 『中國語音韻學』, 통나무, 2000, 53면.

51) 東은 『東國正韻』의 한자음, 奎는 『奎章全韻』의 한자음이다.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지점이 해당 聲母의 한글 표기이다. 예를 들어 聲母가 牙音의 全濁인 경우, 『東國正韻』에서는 ‘ㄱ’으로 표기하고, 『奎章全韻』에서는 ‘ㄱ’으로 표기했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字母의 수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 가운데 일부, 즉 半齒音을 ‘ㄷ’가 아닌 ‘ㅇ’으로 표기하거나, 知系 聲母 일부를 ‘ㄷ·ㄷ’으로 표기한 것은 각각 ‘ㄷ’의 소실과 구개음화라는 우리말의 음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한자음의 변화로 인해 생긴 차이가 아니라, 韻書 편찬자의 語音에 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생겨난 결과이다. 『東國正韻』의 序에서는 溪母(牙音次清)가 대부분 見母(牙音全清)처럼 나타나고, 때로 曉母(喉音次清)처럼 나타나는 현상과, 濁音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며,⁵²⁾ 이들을 모두 바로잡았다고 설명하였다. 즉, 序에서 지적한 소위 ‘字母之變’·‘清濁之變’·‘七音之變’과 같은 현상은 『奎章全韻』이 만들어진 18세기 후반뿐 아니라, 15세기 중반부터 이미 존재했었는데, 『東國正韻』의 편찬자들이 이러한 현실한자음의 특징을 잘못으로 보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교정 기준에 따라 고친 결과, 두 韻書의 字母 체계에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東國正韻』의 편찬자들이 字母(全清과 次清의 차이), 清濁, 七音を 바탕으로 초성을 바로잡은 것은 중국어 말소리에 따라 우리나라의 한자음을 교정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언어 자질로 인식했기 때문이다.⁵³⁾ 다시 말해 『東國正韻』의 편찬자들은 字母, 七音, 清濁이 正音(표준음 또는 규범음)을 이루는 자질들이라고 보았던 것이다.⁵⁴⁾ 한편 『奎章全韻』에서는 全清과 次清이 뒤섞이고, 清濁을 구별하지 않는 현실한자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는 이덕무의 語音에 관한 인식이 『東國正韻』의 편찬자들과 상당히 달랐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차이는

52) 『世宗實錄』, 권117, 世宗二十九年九月二十九日戊午, “字母·七音과 清濁·四聲이 모두 변한 것이 있으니, 牙音으로 말할 것 같으면 溪母의 글자가 태반이 見母에 들어갔으니, 이는 字母가 변한 것이고, 溪母의 글자가 曉母에도 들었으니, 이는 七音이 변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말소리에 清濁의 분별이 중국과 다름이 없는데, 字音에는 오직 濁聲이 없으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을 것인가. 이는 清濁의 변한 것이고 …….(而字母七音清濁四聲, 皆有變焉. 若以牙音言之, 溪母之字, 大半入於見母, 此字母之變也; 溪母之字, 或入於曉母, 此七音之變也. 我國語音, 其清濁之辨, 與中國無異, 而於字音獨無濁聲, 豈有此理! 此清濁之變也 ……)”

53) 『世宗實錄』, 권117, 世宗二十九年九月二十九日戊午, “우리 나라는 안팎 강산이 자작으로 한 구역이 되어 풍습과 기질이 이미 중국과 다르니, 호흡이 어찌 중국음과 서로 합치될 것이라. 그러한즉, 말의 소리가 중국과 다른 까닭은 이치의 당연한 것이고, ……, 이것이 글자의 음이 또한 따라서 변하게 된 것이니, 그 음은 비록 변하였더라도 清濁과 四聲은 옛날과 같은데 ……(吾東方表裏山河, 自爲一區, 風氣已殊於中國, 呼吸豈與華音相合歟! 然則語音之所以與中國異者, 理之然也. …… 此其字音之所以亦隨而變也. 其音雖變, 清濁四聲則猶古也 ……)”

54) 조운성, 앞의 논문, 14면 참조.

韻書의 편찬자가 참고로 했던 문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덕무는 전통의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문자언어학 연구 결과물을 접했고, 그 중에는 明代의 실제 중국어 말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韻書와 韻圖가 속해 있었다. 앞서 예를 든 『交泰韻』이 근대음의 특징을 반영한 19聲母 체계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交泰韻』의 19聲母⁵⁵⁾

k見	k溪		x曉	ø影
t端	t透	n泥		l來
p幫	p滂	m明	f非	
ts精	ts清		s心	
tʂ照	tʂ穿		ʂ審	ʒ日

『交泰韻』의 聲母 체계를 『廣韻』의 36字母 체계와 비교하면, 牙音과 喉音이 섞이고, 全濁이 없어지는 등, 전통 韻書에서 지켜졌던 淸濁과 七音의 구별이 모호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하면서 조선 전기의 학자들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되는 자질이라고 여겼던 字母·淸濁·七音에 대한 학자들의 인식도 바뀌었던 것이다. 물론 참고문헌 중에는 전통 韻書의 36字母 체계를 따르는 문헌도 포함 되어 있다.⁵⁶⁾ 그러나 時韻이나 方言을 반영한 韻書, 심지어 알파벳으로 한자음을 표기한 韻書까지 섭렵했던 이덕무는 字母·淸濁·七音 등을 正音 성립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奎章全韻』의 한자음이 현실한 자음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실학이라는 학문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 덧붙여 이덕무가 접했던 時韻을 반영한 문헌의 영향도 적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중성의 경우, 『東國正韻』의 序를 읽어보면 초성과 중성의 교정에 관해서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언급하고 있는 것에 비해, 중성 교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⁷⁾ 그러나 실제로 『東國正韻』의 교정한자음과 현실한자음

55) 甯忌浮, 『漢語韻書史 明代卷』, 上海人民出版社, 2009, 224면.

56) 『集韻』과 『音韻日月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의 중성을 비교하면 현실한자음을 완전히 배제하고 중성을 교정한 예를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開合을 기준으로 현실한자음의 중성을 교정한 경우이다.⁵⁸⁾ 예를 들면 卓·捉 등의 현실한자음은 ‘탁H’·‘착’으로 나타나는데,⁵⁹⁾ 『東國正韻』에서는 이들이 合口韻이라 하여 그 음을 ‘탁’·‘착’으로 표기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奎章全韻』에서는 이들의 음을 ‘착’·‘착’으로 표기했다. 이 사실로부터 『東國正韻』의 편찬자들은 開合이라는 자질을 字母·淸濁·七音처럼 반드시 지켜져야 할 요소로 인식했으나, 『奎章全韻』의 편찬자는 韻의 開合을 『東國正韻』만큼 철저히 구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⁶⁰⁾ 이러한 변화도 마찬가지로 편찬자 이덕무가 참고로 했던 서적의 내용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明末淸初에 등장한 『韻法橫圖』에서는 韻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開合과 等이 아닌 呼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존 韻書와 韻圖에서 볼 수 없는 방법이다. 開合과 等を 대체할 새로운 분류 자질의 등장은 조선 전기 학자들이 고정불변이라고 믿었던 正音を 이루는 자질이 사실상 대체 가능한 것이었음을 나타내며, 이는 이덕무를 비롯한 조선 후기 학자들의 正音에 관한 인식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東國正韻』과 『奎章全韻』 한자음의 중성을 비교하면, 음운 체계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표기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東國正韻』에서는 중국어 中古音의 -w韻尾를 중성 ‘ㅁ’으로 나타내고, -i韻尾나 韻尾가 없는 경우 중성 ‘ㅇ’으로 받쳐 적었다.⁶¹⁾ 그러나 여기서 ‘ㅁ’과 ‘ㅇ’은 사실상 음가가 없으며, 단지 중고음 韻尾의 종류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는 초·중·종

57) 『世宗實錄』, 권117, 世宗二十九年九月二十九日戊午, “대개 옛적에 詩를 짓는 데에 그 음을 맞출 뿐이었는데, 三百篇으로부터 내려와 漢·魏·晉·唐의 모든 作家도 또한 언제나 같은 운율에만 구애하지 아니하였으니, ‘東韻을 ‘冬韻도 쓰고, ‘江韻을 ‘陽韻도 씀과 같은 따위이니, 어찌 韻이 구별된다 하여 서로 통하여 맞추지 못할 것이라. (蓋古之爲詩也, 協其音而已. 自三百篇而降, 漢·魏·晉·唐諸家, 亦未嘗拘於一律, 如東之與冬·江之與陽之類, 豈可以韻別而不相通協哉!)

58) 林茶英, 「東國正韻漢字音研究-中聲の修正を中心に」, 東京大 박사학위논문, 2019.

59) 현실한자음 자료는 伊藤智ゆき 著, 『朝鮮漢字音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7을 참고로 하였다.

60) 다만 일부 韻의 중성 표기 중에는 ‘·’나 ‘ㄱ’로 표기한 예들도 있어서, 『奎章全韻』의 한자음이 현실한자음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61) 高는 중고음 效攝에 속하며 -w韻尾를 가진다. 『東國正韻』에서는 이 글자의 음을 ‘골’로 적었다. 皆는 중고음 蟹攝에 속하며 -i韻尾를 가진다. 拘는 遇攝 글자이고 韻尾가 없는데, 이들의 『東國正韻』 한자음은 각각 ‘깁’와 ‘궁’이다.

성을 모두 갖추어 적어야 한다고 의식한 결과이다. 반면 『奎章全韻』에서는 中古音의 韻尾를 따로 표기해주지 않았는데, 이렇듯 종성 표기에 차이가 생겨난 원인은 正書法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東國正韻』에서는 中古音 - 韻尾가 현실한자음 종성에서 ‘ㄹ’로 나타나는 현상을 ‘四聲之變’이라는 잘못으로 규정하고, 이를 모두 종성 ‘ㄹ’로 고쳐적었다.⁶²⁾ 『東國正韻』의 序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⁶³⁾ 편찬자들은 四聲을 字母·淸濁·七音과 마찬가지로 변해서는 안 될 자질로 인식하고 있었고, 入聲의 促急한 음성적 특징을 살리지 못하는 종성 ‘ㄹ’을 교정함으로써, 四聲의 음성적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했다. 즉, 『東國正韻』의 편찬자들은 正音을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음성적 특징을 한자음의 표기에 담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 사실은 조선 전기 학자들의 正音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와는 달리 『奎章全韻』에서는 현실한자음의 종성을 교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록하였다. 이덕무가 종성 ‘ㄹ’을 고치지 않은 이유는 알기 어렵다. 단지 四聲의 구별뿐 아니라, 入聲의 소리의 성질까지도 그대로 나타내야 四聲이라는 자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東國正韻』의 편찬자들과는 다르게 이덕무는 卞·上·去·入을 나누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었고, 한자음 받침의 유무만으로도 入聲에 속한 글자와 그렇지 않은 글자가 구별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이덕무는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正音觀을 구현하기 보다 실용적이고 편리한 韻書를 편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IV. 결론

『東國正韻』과 『奎章全韻』은 조선 전기와 후기를 대표하는 東音(한국한자음) 韻書

62) 『世宗實錄』, 권117, 世宗二十九年九月二十九日戊午, “質韻과 勿韻은 마땅히 端母로서 終聲을 삼아야 할 것인데, 세속에서 來母로 발음하여 그 소리가 느리게 되므로 入聲에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는 四聲의 변한 것이라. …… 質·勿韻은 影으로써 來를 기워서 속음을 따르면서 바른 음에 맞게 하니 …… .(質勿諸韻, 宜以端母爲終聲, 而俗用來母, 其聲徐緩, 不宜入聲, 此四聲之變也. …… 又於質勿諸韻, 以影補來, 因俗歸正 …….)

63) 각주52 참조.

이다. 두 韻書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가 시기별 문자언어학 연구의 경향성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각 韻書의 편찬자가 참고로 했던 문헌들의 유형을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두 韻書의 체재와 한자음을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아래에 고찰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두 韻書의 참고문헌은 수량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지만 그 유형상의 특징 역시 매우 다르다. 먼저 『東國正韻』의 참고문헌은 그 수가 적을뿐 아니라 유형을 보더라도 正音(규범음·표준음)을 규정한 韻書와 중국 전통의 韻圖, 그리고 성리학적 언어관으로 語音을 분석한 이론서에 한정되어 있다.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 통단 체재를 유지한 점이나, 字釋 없이 한자음만을 표기해 놓은 사실 등은 『東國正韻』이 正音を 확정하고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설명해주는데, 이는 참고문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전통 韻書의 편찬 목적과 통하는 것이다. 또한 한자음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字母·淸濁·七音·四聲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전통 韻圖의 語音 분석 태도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奎章全韻』의 참고문헌의 수는 전부 100종이 넘었으며, 그 유형을 살펴보면 韻書類와 字書類 등의 문자언어학 관련 서적뿐 아니라 외국어 학습서 및 백과사전과 같은 실용서까지 포함된다. 그중에는 같은 문자언어학 서적으로 분류되지만, 전통의 틀을 계승하지 않고, 時韻이나 방언을 반영한 韻書, 편찬 당시의 말소리를 반영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語音을 분석한 韻圖, 한자의 구성 요소를 부수로 세워 검색의 편의성을 높인 字書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奎章全韻』의 체재가 실용성과 편리함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이나, 수록된 한자음이 기존 韻書와 韻圖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평가되었던 요소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새롭고 혁신적인 성격의 문자언어학 서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편목의 제한으로 인해 참고문헌 각각에 대한 세밀한 고찰을 할 수 없었기에, 두 운서의 내용과 형식 상의 차이가 참고문헌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두 운서에서 참고로 했던 문헌, 그 중에서도 『규장전운』이 참고한 방대한 자료에 대한 고찰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충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건국대학교 출판부, 『東國正韻』, 건국대학교 출판부 영인본, 1988
- 고려대학교 출판부, 『洪武正韻譯訓』, 고려대학교 출판부 영인본, 1973
- 아세아문화사, 『洪武正韻』,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3
- 王弼 注, 성백효 譯, 『譯註周易正義4』, 傳統文化研究會, 2020
- 李圭景 著, 성백효 외 譯, 『分類 五洲衍文長箋散稿』 17집, 민족문화추진회, 1967
- 韓非 撰, 林東錫 譯註, 『林東錫中國思想100 한비자』, 동서문화사, 2021
-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周易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清]王先謙 撰, 『新編諸子集成·荀子集解 上』, 北京: 中華書局, 1988
- [清]王先慎 撰, 『新編諸子集成·韓非子集解』, 北京: 中華書局, 1998
-
- 박형익, 『한국 자전의 역사』, 역락, 2012
- 심소희, 『한자 정음관의 통시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유창균, 『東國正韻研究』, 형설출판사, 1966
- 정경일, 『한국 韻書의 이해』, 아카넷, 2002
- _____, 『奎章全韻·全韻玉篇』, 신구문화사, 2008
- 최영애, 『中國語音韻學』, 통나무, 2000
- 宁忌浮, 『古今韻會舉要及相關韻書』, 中華書局, 1997
- _____, 『漢語韻書史 明代卷』, 上海人民出版社, 2009
- 大島正二, 『辭書の發明』, 東京: 三省堂, 1997
- 伊藤智ゆき, 『朝鮮漢字音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7
- 花登正宏, 『古今韻會舉要研究 - 中國近世音韻史の一側面-』, 汲古書院, 1997
-
- 강신항, 「이규경의 언어 문자연구」, 『대동문화연구』 1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2
- _____, 「신숙주의 음운학」, 『어문연구』 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 權赫竣, 「『東國正韻』과 『古今韻會舉要』의 通·宕·曾·梗攝 음운 체계 비교」, 『中國語文論叢』 12, 중국어문연구회, 1997
- 김경천, 「顧炎武 古音學의 動機와 方法」, 『중국어문논총』 21, 중국어문연구회, 2001
- 서한용, 「이덕무의 중국 문자학 인식」,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신상현, 「18세기 韻書 編纂과 清代 古音學 受容 研究-특히 『奎章全韻』 편찬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8,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 _____, 「朝鮮後期 文字言語學 研究 흐름과 字書 編纂」, 『한자한문연구』 2,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2009

- 양원석, 「正祖 『文字策問』에서의 文字學諸說에 대한 논의(1)」, 『민족문화연구』 45, 민족문화연구원, 2006
- _____, 「小學과 『說文解字』 연구를 통해 본 조선 후기 漢字學」, 『한국실학연구』 29, 한국실학회, 2015
- 유창균, 「東國正韻研究-其二, 九十一韻의 成立과 그 背景」, 『진단학보』 28, 진단학회, 1965
- _____, 「皇極經世書가 國語學에 끼친 影響」, 『石堂論叢』 15, 동아대 석당학술원, 1989
- 이준환, 「中世·近代·開化期の 韻書 및 字書 편찬의 역사」, 『東洋學』 57,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4
- 정경일, 「조선시대의 韻書이용 양상」, 『한국어학』 7, 한국어학회, 1998
- _____, 「조선후기 국어 연구의 실학적 경향」, 『한국어학』 14, 한국어학회, 2001
- 조운성, 「『동국정운』 한자음의 성모와 운모 체계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1
- 하영삼, 「한국 역대 『說文解字』 연구 綜述」, 『중국어문학』 56, 영남중국어문학회, 2010
- 林茶英, 「東國正韻漢字音研究-中声の修正を中心に」, 東京大 박사학위논문, 2019

Comparative study on Tongkukchǒngun and Kyuchangchǒnun through Analysis of Types of References

Lim, Da-yǒng

This study is to clarify how the tendency of linguistic studies in the early and late Joseon Dynasty was realized in the form and content of *Tongkukchǒngun*(1448) and *Kyuchangchǒnun*(1796). To clarify this, first, the books referenced by the pronunciation dictionaries' editors were classified by type using the literature records of the two dictionaries. Next,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ferences in the two pronunciation dictionaries, the flow of linguistic research in the Joseon Dynasty was examined diachronically. And how the academic tendencies of each period were actually realized in the contents and forms of the two dictionaries were examined.

References in *Tongkukchǒngun* were not only few, but the content was limited to traditional Chinese linguistics. In contrast, the total number of references in *Kyuchangchǒnun* was over 100, and the types were very diverse. It was confirmed that these differences in the types of references lead to differences in the form and content of *Tongkukchǒngun* and *Kyuchangchǒnun*.

Key Words : *Tongkukchǒngun*, *Kyuchangchǒnun*, References, Linguistics of the Joseon Dynasty, Rhyme book

